

## 문제성 음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CHILDREN OF PROBLEM DRINKERS

손 영 균\*·오 경 자\*\*

Young-Kyoon Sohn, M.A.\* Kyung-Ja Oh, Ph.D.\*\*

요 약 : 본 연구는 문제성 음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의 음주문제를 보고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문제성 음주자의 청소년 자녀 집단(남 126명, 여 210)과 부모가 음주 문제가 없는 비교 집단(남 190, 여 222)을 구성하여 두 집단의 가족 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 우울, 음주 기대, 음주 개입 및 비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덜 받았다고 느꼈으나, 부모의 과보호는 더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음주 기대가 높고 음주와 비행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 위의 여러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만 성별과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음주 기대, 음주 개입 그리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집단의 자료에 각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및 불안 등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부모의 음주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음주 문제와 비행은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모의 음주 문제 정도 및 이들의 불안·우울 등의 정서상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중심 단어 : 문제성 음주자·청소년 자녀.

### 서 론

알콜장애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매우 부적응적인 가족 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가 속한 가족 전체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다(Wormer 1989). 알콜장애자의 상담수는 본인이 여러 정서장애와 행동상의 문제를 보일 뿐 아니라(유계준, 이범용과 이만홍 1991; 배성일 1993), 배우자와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알콜장애자의 배우자들 중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기일과 연병길 1982; 임완빈, 김승팔과 강병조 1986). 이러한 경우 알콜장애자 자녀들은 양쪽 부모가 모두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매우 부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 더욱이 많은 경우 이들 자신이 정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통받는 부모를 위로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되며, 때로는 가족내의 여러 실제적 어려움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Sell 1992), 부모-자녀의 역할전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알콜장애자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취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약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음주율이 상당히 높고(77%), 알코올 중독의 평균 유병률이 26.77%(이호영, 남궁기, 이만홍, 민성길, 김수영, 송동호, 이은설과 Roberts 1989)라고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음주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알콜장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배우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임완빈 등 1986; 1986; 정기일 등 1992; 손봉기, 한창환과 정소영 1992), 알콜장애자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김소야자, 이만홍, 황미희, 남궁기, 김병후와 김선아(1989)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음주 문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주로 알콜장애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인 반면, 서구에서는 근래 알콜장애자의 자녀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매우 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l-Guebaly & Offord 1977; Cotton 1979). 그러나 근래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콜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중 특히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집단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음이 지적되면서(Berkowitz & Perkins 1988; Churchill, Broidia & Nicholson 1990), 연구자들은 임상 집단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중 음주문제가 있는 집단의 자녀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알콜장애자의 자녀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심리적 고통과 여러가지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알콜장애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불안 수준이 더 높고(Cole 1988; Knowels & Schroeder 1990; Tweed & Ryff 1991), 더 우울하며(Benson & Heller 1987; Knowles 등 1990; Tweed 등 1991), 자존감이 낮고(Cole 1988; Potter 1991),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otter 1991; Kashubeck & Christensen 1992). 또한 이들은 남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Latham 1989; McCarthy Woods 1989),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Benson 등 1987; Rubio-Stipec, Bird, Canino, Bravo

& Alegria 1991), 외적 통제 소제를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Davis 1983). 아울러 알콜장애자의 자녀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Knop, Teasdale, Schulsinger & Goodwin 1985; Sher 등 1991), 학업 성취가 낮고(Sher 1991),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며(Beson 등 1987),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고(Sher 등 1991),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danik 1983; Parker & Harford 1987; Pandina & Johnson 1990; Newlin & Tomson 1990; Kubicka, Kozeny & Roth 1990; Parker 등 1990; Sher 등 1991; Chassin, Rogosch & Barreara 1991).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알콜장애자의 자녀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하여 여러가지 적응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이들 두 집단 간에 성격적 특징이나 심리적 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되어 있다. 예를들면, 우울과 자존감(Morison & Schuckit 1983; Duprez 1987; Clair & Genest 1987), 통제 소재와 자존감(Churchill 등 1990; Werner & Broidia 1991), 과잉행동(Tarter, Hegedus & Galaler 1985), 심리적 부적응의 증상(김소야자 등 1989) 및 여러 성격 특성들(Berkowitz 등 1988)에서 알콜장애자 자녀 집단과 일반 집단이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알콜장애자 자녀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술먹는 양과 빈도가 비슷하고(Schuckit & Sweeney 1987), 심지어는 알콜장애자의 자녀 집단이 도리어 술을 덜 사용하고 술에 자주 취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도 있었다(Alterman 등 1989).

이와 같이 연구들간에 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Knowles 등(1990), Rogosch, Chassin과 Sher(1990), 그리고 Sher 등(1991)은 알콜장애자 자녀와 비교집단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이 대부분 연구 대상이 30명 이하의 작은 규모의 집단이거나(Alterman 등 1989), 대학생 집단 등(Schuckit 등 1987; Berkowitz 등 1988; Churchill 등 1990) 일반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는 특수 집단을 표집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좀 더 일반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콜장애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가 이들을 일반집단에 비교하여 그 적응상의 문제를 밝혀려고 한 것에 비해, 이들이 겪는 적응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Chassin, Mann & Sher 1988 ; Rogosch 등 1990 ; Chassin 등 1991 ; Sher 등 1991). 이들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결과는 부모의 음주 문제는 자녀들의 흡연, 음주 및 과식과 같은 외현적 증상(externalizing symptomatology)을 예견하는 위험 요인이 되지만, 우울, 불안 그리고 자존감 저하와 같은 내현적 증상(internalizing symptomatology)은 부모의 음주문제보다는 가족 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알콜장애자 자녀들의 적응문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가족변인으로는 가족 응집력과 갈등 등의 가족 구조와 관련된 변인들이었다(Clair 등 1987). 근래 Bowlby와 Rutter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는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의 개념을 토대로 Parker 등(1987)이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송지영(1992)이 PBI를 사용하여 우울과 불안 신경증이 높은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보살핌의 수준이 낮은 반면 과보호 경향은 오히려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에서 측정하는 보살핌과 과보호의 두 차원은 알콜장애 부모의 부모 역할에서의 문제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알콜장애 집단 자녀들의 적응문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중요한 발달 과제로 제기되는 시기로 부모의 정신병리와 가족 환경이 심리적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의 알콜장애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적응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의 적응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음주 문제를 보이는 부모를 둔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일반 집단과 비교하였다. 또한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청소년들의 적응문제와의 구체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음주개입, 비행 등의 적응문제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문제성 음주 등의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789명의 청소년들에게 알콜장애 색출검사(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CAST)를 실시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바대로 6점 이상을 얻었을 경우를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으로, 6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를 비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789명에서 부실하게 기입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것은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 336명(남 126명, 여 210), 비교 집단 412명(남 190, 여 222명), 총 748명이었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과 비교 집단의 부모 학력과 사회경제 수준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자기가

표 1.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에 따른 가정배경

	남		여		p<.01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비교집단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비교집단	
	M SD	M SD	M SD	M SD	
아버지 학력	3.6(1.5)	4.1(1.1)	2.9(1.1)	3.1(0.9)	R, G
어머니 학력	2.9(1.3)	3.7(1.1)	2.6(1.0)	3.1(0.9)	R, G
사회경제수준	2.9(0.7)	2.7(0.9)	3.2(0.7)	3.0(0.7)	R, G

R=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 G=성별.

학력은 1. 무학, 2. 국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6. 대학원 이상으로 평가되었음.

사회경제적 수준은 1. 상, 2. 중상, 3. 중중, 4. 중하, 5. 하로 평가되었음.

정의 사회경제 수준이 각각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F_{1,736}=78.41, p<.001$ ;  $F_{1,736}=43.41$ ;  $p<.001, F_{1,736}=6.68, p<.01$ ).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위의 세변인에 대하여 각각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F_{1,736}=14.36, p<.001$ ;  $F_{1,736}=22.61, p<.001$ ;  $F_{1,736}=24.63, p<.001$ ).

## 2. 평가 도구

### 1) 부모의 문제성 음주 평가 검사

부모의 문제성 음주를 평가하기 위하여 Jones(1981)가 개발한 Children of Alcoholic Screening Test (CAS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AST의 번안 과정은 연구자가 원문에 충실하게 일차 번역을 한 후, 문제성 음주자 가정에서 성장했던 성인과 청소년에게 실시하여 표현이 어색하거나 의미전달이 잘 안되는 단어와 문장은 수정하였다. CAST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 또는 알콜장애자의 자녀들을 변별하는데 사용되어 온 척도로(Roosa, Michaels & Groppenbacher 1988; Churchill 등 1990; Berkowitz 등 1988; Werner 등 1991; Tweed 등 1991; Kashubeck 등 1992) 부모의 음주 행동에 대한 자녀의 감정, 지각, 태도, 경험을 묻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1)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싸우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2)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술병을 숨기거나 없애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3)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음주가 당신 때문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누군가가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음주를 당신 탓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까? 5)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음주 문제 때문에 자주 고민하는 편입니까? 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예' 문항을 선택한 총 숫자를 합하여 알코올 중독 또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Kashubeck 등 1992)에서 사용된 예를 보아 CAST에서 6점 이상을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 2)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의 측정을 위하여 Parker(1979)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이 사용되었다. PBI는 보살핌(12문항)과 과보호(13문항)의 두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검사로 16세 이전까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회상하여 각 항목에서 '전혀 안그랬다', '안그랬다', '그랬다', '아주 그랬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검사의 결과는 보살핌과 과보호의 두 차원의 점수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보살핌이 높고 과보호가 낮으면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형태로, 낮은 보살핌 수준과 높은 과보호 수준은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로 해석된다. 송지영(1992)은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를 개발하고자 PBI의 원문항을 번역하고 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PBI는 신뢰도가 높았으며 요인 구조도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밝혔다.

### 3) 우울 검사(SDS)

우울 성향의 측정을 위해 Zung(1965)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을 최태영, 이길홍과 민병근(198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증상과 일치하는 질문 10문항과 증상과 반대되는 질문 1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적 우울 성향(Pervasive affect), 생리적 우울 성향(Physiological concomitants), 심리적 우울 성향(Psychological concomitants)의 3개의 우울증상 범주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성향의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각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 4) 불안 검사(SAS)

불안 정도의 측정을 위해 Zung(1971)의 Self-rating Anxiety Scale(SAS)을 양재곤(198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AS는 정신적인 측면(5문항)과 신체적인 측면(15문항)의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불안 성향이 강한 정도에 따라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총 점수가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 5) 음주 기대 검사(AEQ)

음주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Brown, Goldman, Inn과 Anderson(1980)이 요인 분석을 통하여 구성된 술의 효과에 대한 6개의 긍정적 기대 요인에, Rohse-

now(1983)가 2개의 부정적 기대 요인을 추가해서 만든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EQ)를 홍종필(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음주 기대 검사(AEQ)는 각 개인이 적당량의 술을 마셨을 경우 그것이 응답자 자신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당 5문항씩 총 40개의 문항이 무선적으로 배열되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응답자가 '예'라고 반응하면 그것은 특정 기대의 존재를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이 검사의 하위 척도는 1) 전반적으로 경험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기대 2) 사회적, 신체적 쾌락 및 성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기대 3) 성적 경험 및 성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기대 4) 힘과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기대 5) 사회적으로 주장력이 향상된다는 기대 6) 긴장이 감소된다는 기대 7) 인지 및 행동 기능이 손상된다는 기대 8) 부주의해지고 무책임해 진다는 기대이다.

#### 6) 음주 개입 검사(AAIS)

음주에 얼마나 개입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yer와 Filstead에 의해 개발되어서 양은주(1992)가 번역한 바 있는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Scale(AAI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8문항과 증상적 음주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1) 술을 마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술로 인해서 학교 생활 및 공부에 지장을 받게 된다 3) 음주로 인하여 가족들과 마찰을 빚게 된다 등의 문항이 있고, 증상적 음주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1) 술을 마신후 싸움을 하거나 기물을

파괴한 경험이 있다 2) 음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경찰서에 간 경험이 있다 3) 술을 마시게 되면 기억을 잃거나 전날 밤의 일부분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는 음주의 경험 정도를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었다.

#### 7) 숨은 비행 척도

비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심영희(1987)와 김준호(1990)에 의해서 개발되고 김하연(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숨은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숨은 비행 척도는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이 범하여도 기소될 중한 비행부터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무단 결석, 가출, 술집 출입 등의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포함한 25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없다', '1-2번', '3-4번', '많다'의 4점 척도로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3.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참가에 동의한 고등학교의 교사를 통해 각 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이나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개인적 가족사항의 노출을 꺼리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810부 중에서 78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4%였다. 질문지 응답에는 보통 4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 결 과

### 분석 1.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 1) 부모와의 관계

문제성 음주 부모 자녀와 비교 집단의 청소년들이

표 2.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PBI 하위척도	남		여		p<.05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M	SD	M	SD					
어머니 보살핌	35.0	(5.0)	36.2	(1.1)	33.9	(6.2)	34.7	(0.9)	R, G
어머니 과보호	31.8	(5.9)	29.1	(5.8)	31.0	(5.8)	28.0	(5.5)	R, G
아버지 보살핌	30.2	(6.1)	32.4	(7.4)	30.1	(6.5)	32.2	(6.8)	R
아버지 과보호	28.6	(5.7)	26.2	(5.4)	28.2	(5.4)	27.3	(5.9)	R

R=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 G=성별.

PBI : Parental Bonding Instrument.

보고한 부모와의 관계가 성별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에( $F_{1,736}=4.16, p<.05$ ), 어머니의 과보호는 더 높게 보고하였다( $F_{1,736}=28.57, p<.001$ ). 그리고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어머니의 보살핌( $F_{1,736}=6.43, p<.01$ )과 과보호( $F_{1,736}=5.88, p<.05$ ) 모두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관계는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더 낮게 지각한 반면( $F_{1,736}=18.32, p<.001$ ), 아버지의 과보호는 더 높게 지각하였다( $F_{1,736}=13.38, p<.001$ ). 그러나 아버지의 보살핌과 과보호에 대해서는 남녀 청소년이 차이없이 비슷하게 지각하였으며, 각 하위 척도에서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성별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2) 정서(우울과 불안)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우울( $F_{1,736}=12.47, p<.001$ )과 불안( $F_{1,736}=7.83, p<.01$ ) 수준이 더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우울( $F_{1,736}=18.00, p<.001$ )과 불안 수준( $F_{1,736}=31.67, p<.001$ )을 보고하였다(표 3). 우울과 불안 도두에서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성별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3) 음주 문제 및 비행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음주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689}=7.47, p<.01$ ). 구체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힘과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기대( $F_{1,715}=13.80, p<.001$ ), 사회 주장력이 향상된다는 기대( $F_{1,715}=6.38, p<.01$ ), 긴장이 감소한다는 기대( $F_{1,718}=12.41, p<.001$ ) 그리고 인지 및 행동 기능이 손상된다는 기대( $F_{1,713}=6.62,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주에 대한

기대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났는데( $F_{1,689}=9.37, p<.005$ ), 음주 기대 검사의 5개 하부 척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음주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으며( $F_{1,571}=4.24, p<.05$ ),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음주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 $F_{1,571}=10.73, p<.001$ ). 그러나 음주 개입의 하위 척도에서는 증상적 음주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만이 차이를 보였다( $F_{1,581}=14.32, p<.001$ ).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더 많은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F_{1,235}=7.44, p<.01$ ),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행 경험을 보고하였다( $F_{1,235}=21.47, p<.001$ ). 그러나 위의 모든 검사와 하부 척도에서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성별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 분석 2.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들의 적응 수준(우울, 불안, 음주 기대, 음주 개입,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울, 불안, 음주 기대, 음주 개입 및 비행의 다섯 변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 수준,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부모 각 각의 돌봄, 과보호)를 포함하여 분석 1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통하여 중다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1의 결과에서 여러 변인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중다 회귀 분석은 성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요약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 수준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모와의 관계, 특히

표 3.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남		여		p<.05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M	SD	M	SD	
우울(SDS)	44.4(6.7)	41.6(9.0)	47.4(8.3)	45.0(10.0)	R, G
불안(SAS)	40.6(7.6)	38.5(7.4)	43.5(9.6)	42.1(8.0)	R, G

R=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 G=성별.

SDS :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AS : Self-rating Anxiety Scale.

표 4.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 문제 및 비행

	남		여		p<.05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문제성 음주자 자녀집단		
	M	SD	M	SD	
음주기대(AEQ)	22.5(8.2)	19.7(9.4)	19.5(7.6)	18.5(7.8)	R, G
긍정적	2.30(1.6)	2.14(1.6)	1.62(1.3)	1.65(1.3)	G
패 락	2.61(1.4)	2.40(1.3)	2.01(1.2)	1.94(1.3)	G
성	1.59(1.5)	1.29(1.6)	0.87(1.2)	0.80(1.1)	G
힘, 공격	2.50(1.5)	1.87(1.7)	2.16(1.5)	1.85(1.4)	R
주장력	3.38(1.6)	2.99(1.6)	2.98(1.5)	2.74(1.5)	R, G
긴장감소	3.60(1.3)	2.87(1.5)	2.92(1.6)	2.68(1.6)	R, G
인지손상	3.61(1.5)	3.14(1.7)	3.71(1.4)	3.44(1.5)	R
부주의	3.46(1.6)	2.99(1.8)	3.26(1.6)	3.18(1.6)	NS
음주개입(AAIS)	2.85(2.5)	1.83(1.9)	2.05(1.8)	1.72(1.9)	R, G
부정적 결과	2.00(1.9)	1.22(1.3)	1.50(1.5)	1.10(1.5)	R
증상적 음주	0.85(1.0)	0.58(0.9)	0.53(0.8)	0.62(1.0)	NS
숨은비행	4.9(2.6)	3.4(2.3)	2.7(2.3)	2.1(2.3)	R, G

R=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有無, G=성별.

NS :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EQ :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AIS :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Scale

표 5.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

부적응특성	성별	위험요인	Beta	MulR	R <sup>2</sup>	F	R <sup>2</sup> change	F change	df
우 울 (SDS)	남자	어머니 돌 봄	-.13	.27	.07	23.71***	.07	23.71***	1/311
		사회경제 수준	.19	.33	.10	18.80***	.04	12.99***	2/310
		아버지 돌 봄	-.18	.37	.13	15.95***	.03	9.25*	3/309
	여자	어머니 과보호	.17	.40	.16	14.77***	.03	9.87*	4/308
		어머니 돌 봄	-.28	.35	.12	63.02***	.12	63.02***	1/455
		아버지 돌 봄	-.21	.39	.15	41.16***	.03	17.08***	2/454
		어머니 학 력	.11	.41	.17	31.59***	.02	10.69***	3/453
불 안 (SAS)	남자	어머니 과보호	.26	.26	.07	23.34***	.07	23.34***	1/311
		문제성 음 주	.15	.31	.10	16.18***	.03	8.46**	2/310
		사회경제 수준	.15	.34	.11	13.04***	.02	4.63*	3/319
	여자	아버지 돌 봄	-.21	.23	.05	24.95***	.05	24.95***	1/455
		어머니 과보호	.17	.28	.07	19.57***	.03	13.51***	2/454
		어머니 학 력	.13	.31	.10	16.24***	.02	8.91**	3/453
음주기대 (AEQ)	남자	불 안	.22	.22	.05	15.33***	.05	15.33***	1/288
		문제성 음 주	.13	.26	.06	10.08***	.02	4.63*	2/287
		사회경제 수준	-.12	.28	.08	8.33***	.02	4.57*	3/286
	여자	불 안	.13	.13	.02	8.59***	.02	8.59***	1/430
음주개입 (AAIS)	남자	음 주 기 대	.30	.34	.11	31.92***	.11	31.92***	1/248
		문제성 음 주	.14	.37	.13	19.11***	.02	5.71*	2/247
		사회경제 수준	-.12	.38	.14	14.30***	.01	4.17*	3/246
	여자	어머니 돌 봄	-.12	.40	.16	11.82***	.01	3.86*	4/245
		음 주 기 대	.18	.20	.04	13.18***	.04	13.18***	1/327
		불 안	.15	.25	.06	10.62***	.02	7.78**	2/326
숨은비행	남자	문제성 음 주	.14	.31	.09	4.49***	.09	4.49*	1/43

\*p<.05    \*\*p<.01    \*\*\*p<.001

사회경제 수준은 1. 상, 2. 중상, 3. 중중, 4. 중하, 5. 하로, 부모의 학력은 1. 무학, 2. 국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6. 대학원 이상으로 평정되었음.

부모의 돌봄, 즉 본인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보살핌을 받았다고 느끼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부가적으로 사회 경제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 등이 영향을 주었다. 불안 수준에서는 부모의 돌봄보다는 어머니의 과보호, 즉 부모로부터 얼마나 과보호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가 중요한 변인이었고, 우울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았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우울과 불안 수준에서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었다.

음주기대에서는 남녀 모두 불안이 중요한 변인이었고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사회 경제 수준이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가졌다. 음주 개입에서는 남녀 모두 음주기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가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 사회 경제 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돌봄이 관련되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불안 수준이 관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비행에 대하여서는 여학생 집단은 보고된 빈도가 극히 낮아서 남학생 집단에서만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 부모의 문제성 음주 변인만이 관련이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였고, 과보호와 통제는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Benson 등 1987), 가족 적응력이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Rubio-Súpec 등 1991)와도 일치한다. 또한 문제성 음주 자녀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하여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임상 집단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 대부분 중하류인 것으로 보고된 기존 연구들(이영호 1980; 임영진 1982; 김경빈 1989)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김소야자 등(1989)의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과 비교 집단간에 부모의 학력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표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한 것은 이들 자녀들의 성장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더 높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알콜중독자가 아닌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표집한 알콜장애자의 자녀 집단도 비교 집단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Cole 1988; Knowles 등 1990; Tweed 등 1991). 다만 김소야자 등(1989)은 일반 집단에 있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을 SCR-90-R 검사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비교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같이 김소야자 등(1989)의 연구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와 관련된 가정 환경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겠으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음주에 대하여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음주를 함으로써 힘과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기대, 사회 주장력이 향상된다는 기대, 긴장이 감소한다는 기대, 인지 및 행동 기능이 손상된다는 기대에서 문제성 음주자 자녀들이 비교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her 등(1991)이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4개의 척도 중에서 3개의 척도(긴장 감소, 사회적인 활력, 수행 증진)에 대해서 강한 기대를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음주에 대한 기대는 음주 개입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고 이미 이전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있다(홍종필 1989; Collins, Lapp, Emmons & Isaac 1990). 청소년은 아직 음주에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지만 음주 기대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그들의 음주 개입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높은 음주기대를 보인다는 것은 이들이 후에 음주로 인한 문제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음주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Kubicka 등(1990), Pandia 등(1990), Sher 등(1991) 및 Chassin 등(199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이 단지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증상적 음주에 개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주 개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여러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보인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나, 이들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하여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 기제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자녀들의 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 등의 외현적 증상(externalizing symptomatology)을 예견하는 위험 요인이 되지만,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와 같은 내현적 증상(internalizing symptomatology)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보다는 가족내의 심리적 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더 많이 관련되어 있었고, 반면 청소년의 음주 기대, 음주 개입 및 비행은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 및 청소년 자신의 불안 수준과 더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lair등(1987)이 자녀들의 우울과 자존감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보다 지각된 가정 환경을 통하여 더 잘 예견될 수 있다고 한 것과, Sher등(1991)의 연구에서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들의 행동 통제력에서의 결함을 보여주는 문제들(behavioral undercontrol)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통한다. 또한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그들 자녀들의 음주 양과 빈도(Rogosch등 1990), 그리고 음주 행동(Chassin등 1988)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들의 행동 통제력의 결함과 음주 기대를 통하여 그들 자녀들로 하여금 음주에 개입되도록 한다는 Sher등(1991)의 견해와도 일관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의 높은 우울과 불안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로 인한 가정의 와해, 혹은 가족 내의 역기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의 음주 기대, 음주 개입 등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정서와 음주 문제에 대해서 다뤄진 것에 비하여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의 비행 문제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문제성 음주자 자녀들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비행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만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가 자녀의 행동 통제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이근철, 이길홍과 민병근 1987)을 고려할 때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그들 자녀들의 음주에 영향을 주어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자료의 탈락이 많아 매우 적은 인원(43명)만이 통계 처리의 대상으로 남았으므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자료를 보완해 추가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문제성 음주를 평가하기 위하여 CAST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서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성 음주 집단을 구성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CAST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에 대하여 자녀들이 지각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것이므로 그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CAST에서 6점 이상을 얻으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성 음주자 자녀 집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다양한 양상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을 변별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과 타당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부모의 문제성 음주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김경빈(1987) : 알콜리즘의 임상적 연구(1) : 최근 5년간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국립서울정신병원 연보 : 105-116
- 김경빈·김창현(1987) : 알콜리즘의 임상적 연구(2) : 최근 5년간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코올중독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대한 비교연구. 국립서울정신병원 연보 : 269-277
- 김소야자·이만홍·황미희·남궁기·김병후·김선아(1989) : 알콜 중독환자 가족과 일반 가족의 정신 증상 발현율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 : 1073-1078
- 김준호(1990) :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김하연(1991) :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비행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배성일(1993) : 입원한 여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2 : 407-413
- 손봉기·한창환·정소영(1992) : 알코올 중독증 환자 부인의 행동경향과 인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1 : 949-956
- 송지영(1992) :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 979-992
- 심영희(1987) : 비판범죄론-일탈과 통제의 분석. 서울 : 법문사
- 양은주(1992) :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 경험이 대학생의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재곤(1982) : 정신과 환자의 자기평가 우울 정도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1 : 217-227
- 유계준·이범용·이만홍(1991) : 주정사용장애에 동반된 우울증과 신체화증상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0 : 146-158
- 이근철·이길홍·민병근(1984) : 청소년의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경정신의학 26 : 334-348
- 이길홍·김현수·민병근(1982) :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21 : 611-627
- 이영호(1980) : 알콜장애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 : 63-68
- 이호영·남궁기·이만홍·민성길·김수영·송동호·이은설·Roberts R(1984) : 강화도 정신과 역학 연구(3) : 주요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 신경정신의학 23 : 984-999
- 임영진(1982) : 입원한 알콜성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1 : 471-479
- 임완빈·김승팔·강병조(1986) : 주정중독 환자 배우자의 불안과 우울 성향 및 가정 생활. 신경정신의학 25 : 584-590
- 정기일·연병길(1982) : 입원된 주정의존증 환자와 그 부인의 정신증상. 신경정신의학 21 : 487-494
- 최태영·이길홍·민병근(1985) : 학생 청소년의 ABO 혈액형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분석. 신경정신의학 24 : 533-544
- 홍종필(1989) :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terman AI, Searles JS, Hall JG(1989) : Failure to Find Differences in Drinking Behavior as a Function of Familial Risk for Alcoholism : A Replication. J Abnorm Psychol 98 : 50-53
- Benson CS, Heller K(1987) : Factors in the Current Adjustment of Young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and Problem Drinking Fathers. J Abnorm Psychol 96 : 305-312
- Berkowitz A, Perkins HW(1988)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J Consul Clin Psychol 56 : 206-209
- Brown SA, Goldman MS, Inn A, Anderson L(1980) :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 419-426
- Chassin L, Mann LM, Sher KJ(1988) : Self-Awareness Theory, Family of Alcoholism and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J Abnorm Psychol 97 : 206-217
- Chassin L, Rogosch F, Barrera M(1991) : Substance Use and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J of Stud Alcohol 100 : 449-463
- Churchill JC, Broidia JP, Nicholson NL(1990) :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 Stud Alcohol 51 : 373-376
- Clair D, Genest M(1987) :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of Offspring of Alcoholic Fathers. J Stud Alcohol 48 : 345-355
- Cole CS(1989)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 An Empirical Investigation(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198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 : 778B
- Collins RL, Lapp WM, Emmons KM, Isaac LM(1990)

- : Endorsement and Strength of Alcohol Expectancies. *J Stud Alcohol* 51 : 336-342
- Cotton N**(1979) : The Familial Incidence of alcoholism : A Review. *J Stud Alcohol* 40 : 89-116
- Davis RB**(1983) : Adolescents from Alcoholics Families : An Investigation i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Ph.D.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Duprez CJ**(1987) : Level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Adult Children of Nonalcoholics(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1987).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8 : 1800B
- El-Guebaly N, Offord DR**(1977) : The Offspring of Alcoholics : A Critical Review. *Am J Psychiatry* 134 : 357-365
- Gamsa A**(1987) :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 291-294
- Jones JW**(1981) :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 Chicago : Family Recovery Press
- Kashubeck S, Christensen SA**(1992) : Differences in Distress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 Counsel Psychol* 39 : 356-362
- Knop J, Teasdale TW, Schulsinger F, Goodwin DW**(1985) :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Men at High Risk for Alcoholism : School Behavior and Achievement. *J Stud Alcohol* 46 : 273-278
- Knowles EE, Schroeder DA**(1990)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ons of Alcohol Abusers. *J Stud Alcohol* 51 : 142-147
- Kubicka L, Kozeny J, Roth Z**(1990) : Alcohol Abuse and its Psychosocial Correlates in Sons of Alcoholics as Young Men and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Young Men in Prague. *J Studies on Alcohol* 51 : 49-58
- Latham MS**(1989) : Relationship Patterns of Female Offspring of Alcoholics : An Examination of Intimacy and Individual in Marriage(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198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9 : 3446B
- McCarthy Woods JM**(1989) : The Relationship of Intimacy to Parental Alcoholism, Trust and Identity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San Diego, 198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 : 1116B
- Midanik L**(1983) : Familial Alcoholism and Problem Drinking in National Drinking Practices Survey. *Addictive Behavior* 8 : 133-141
- Morrison C, Schuckit MA**(1983) : Locus of Control in Young Men with Alcoholic Relatives and Controls. *J Clin Psychiatry* 44 : 306-307
- Newlin DB, Thomson JB**(1990) : Alcohol Challenge With Sons of Alcoholics :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J Stud Alcohol* 108 : 383-402
- Pandina RJ, Johnson V**(1990) : Serious Alcohol and Drug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a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J Studies on Alcohol* 51 : 278-272
- Parker DA, Harford TC**(1987) : Alcohol-Related Problems of Children of Heavy-Drinking Parents. *J Stud Alcohol* 48 : 265-268
- Parker G, Tupling H, Brown LB**(1979) :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 1-10
- Potter AE, Williams DE**(1991) : Development of a Measure Examining Children's Roles in Alcoholic Families. *J Stud Alcohol* 52 : 70-77
- Rogosch F, Chassin L, Sher KJ**(1990) : Personality Variables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Family History Risk for Alcoholism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 Stud Alcohol* 51 : 310-318
- Rohsenow DJ**(1983) :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 Effect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 752-756
- Roosa MW, Michaels M, Groppenbacher N**(1993) : Validity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Alcohol Ab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 : 71-79
- Rubio-Stipec M, Bird H, Canino G, Bravo M, Alegria M**(1991) :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in the Community. *J Stud Alcohol* 52 : 78-88
- Sell C**(1992) : Unfinished Business : Helping Adult children Resolve Their Past. 경동섭, 최민희 옮김, 아직도 아몰지 않은 상처. 서울 : 도서출판 도란노
- Sher KJ, Walitzer KS, Wood PK, Brent EE**(1991) :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 Putative Risk Factors, Substance Use and Abuse and Psychopathology. *J Abnorm Psychol* 100 : 427-448
- Shuckit MA, Sweeney S**(1987) :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ons of Alcoholics and Controls. *J Stud Alcohol* 48 : 528-534
- Tarter RE, Hegedus AM, Gavaler JS**(1985) : Hyperactivity in Sons of Alcoholics. *Stud Alcohol* 46 : 259-261
- Tweed SH, Ryff CD**(1991) :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 Profiles of Wellness amidst Distress. *J Stud Al-*

cohol 52 : 133-141

Werner LJ, Broida JP(1991) : Adul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s a Function of Familial Alcoholism and Dysfunction. *J Stud Ancohol* 52 : 249-252

Wormer K(1989) : Co-dependency : Implications for Women and Therapy. *Women & Therapy* 8 : 51-

63

Zung, WWK(1965) : A Self-rang Depression Scale in an Outpatient Clinic.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 63-70

Zung, WWK(1971) :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 371-379

ABSTRACT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5 : 172~183, 1994

PSYCHOLOGICAL CHARACTERSTICS OF ADOLESCENT CHILDREN OF PROBLEM DRINKERS

Young-Kyoon Sonlt, M.A.,\* Kyung-Ja Oh, Ph.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risk for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A group of adolescent children of problem drinkers(126 boys, 210 girls) and a group of children of non-problem drinkers(190 boys, 222 girls) were compared on demographic variables,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parental care and parental overprotection), depression, anxiety, alcohol expectancies, alcohol involvement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Adolescent children of problem drinkers reported lower level of perceived parental care and higher level of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compared to the children of nonproblem drinkers. They also reported higher depression, anxiety and alcohol expectancies, as well as more alcohol involvement and delinquent behavi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seperately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xiety, alcohol expectancies, alcohol involvement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as outcome variables. Adolescents' emotional distress(depression and anxiety) was associated with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rather than parental problem drinking, but adolescents' alcohol problems and delinquency were associated with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adolescents' emotional distress rather than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KEY WORD : Problem drinker · Adolescent children.